



## “장애특성 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강화”

전남도교육청, ‘전남특수교육 2020’ 설명회 개최

직업전환 중심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7개로 확대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을 한 해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해 특수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5일 오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남특수교육 2020’ 설명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2020년 특수교육 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계획에서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또,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장애학생의 성공

적 사회전환을 지원하고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교육청 장애학생의 일자리 사업인 장애청년 드림워크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및 특수학교에 60여 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업전환중심 거점 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7개 센터로 확대하고,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환경개선 및 특수교육 인력 확충을 비롯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전남특수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22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운영강사, 특수학교 교감과 부장교사,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지난해 제



1회 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특수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신 선생

님들 덕분.”이라면서 “올 한 해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과 문화·예술·체육교육 및 인권보호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오늘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신안군 임자면, ‘2020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의 사회활동을 통한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와의 공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노케어, 환경지킴이, 공중목욕장 도우미, 경로식당 지원, 초등학교 안심지킴이 등 각 분야에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12월까지 사업에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김기만 신안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 대표자의 선서를 시작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근무지 지정 및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 참여자 의견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14일 신안군 임자면 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활기 차게!” 100여명의 어르신들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2020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

## 장흥군, 65세 이상 백내장 수술비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 100여명 대상…1인 1안 25만원 한도

장흥군이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20년 사업비 2천 500만원을 확보하고,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 100여명에게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내장은 안구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발생하는 시력장애 질환이다.

노인성 백내장의 경우 60대의 절반 이상, 7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규모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고령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청방법은 수술 후 수술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인 1안(眼) 25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2020년 1월 2일 수술분부터 적용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키고 있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발달장애인‘직장 안전’

쉬운 책으로 담았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책자 발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정주, 이하 공단)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책 ‘보람씨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발간했다.

발달장애인의 직장 내 안전사고 위험은 늘 있으나 현장에서 이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쉬운 글로 된 (발달장애인용)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행복회사에 취업한 보람씨의 일과를 중심으로 보람씨와 직장동료들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과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쉬운 글로 된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로서 발달장애인 근로자는 물론 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업체 담당자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체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그림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으며,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훈련생이 직접 감수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시각장애와 마비증상이 있는 미금(美金:아름다운 긍정이라는 뜻으로 작가가 직접 붙인 별칭) 주체 작가가 삽화 제작에 참여하였다.

공단 최종철 고용개발실장은 “발달장애인이 이 책을 보고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알기 쉬운 노동법’, ‘보람씨의 행복한 직장생활’, ‘빵빵! 꿈을 실은 job버스(직업정보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람씨의 안전한 직장생활’을 비롯한 모든 책들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고용개발원(직업영역개발팀)으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 (<http://www.kead.or.kr>) 직업영역 개발자료실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도 있어 모바일 기기로도 볼 수 있다.

##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